

삼성석유화학, 2004년 매출 1조원 목표

중국보다 앞선 전략 PTA 1위 고수 ... 수출전용부두로 물류경쟁력 확보

삼성석유화학이 창사 30주년을 맞는 2004년 매출 1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4월26일 발표했다.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은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창사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5월부터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한 <비전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허태학 사장은 “삼성석유화학은 삼성과 BP의 합작기업으로 1974년 설립된 이래 PTA 단일제품 생산으로 2004년 매출 1조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태학 사장은 삼성석유화학의 설비생산성(Reliability)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PTA 생산기업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삼성석유화학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

또 에너지 합리화로 제조원가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244억원의 에너지 비용의 절감과 함께 생산변동 원가를 35% 가량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석유화학은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비전 테스트포스팀>에 전 임원이 참가해 6시그마 등 경영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선진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허태학 사장은 “2004년 말 완료되는 서산사업장 20만톤 증설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원가를 25% 줄여 중국에 신설되는 최신 PTA 공장보다 한발 앞선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이미 수출전용부두를 통한 물류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앞으로 중국전략을 주도하는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

<화학저널 2004/04/27>